

50인 미만 中企 40% “중대재해법 준수 불가”

●중기중앙회 ‘중소 중대재해법 실태조사’

“최소 2년이상 유예 필요” 답변 60% 육박
산재예방 지원사업 활용 기업 16% 그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고작 7개월을 남겨둔 가운데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적용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산재예방 지원예산 규모를 1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활용 중이거나 활용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10곳 중 채 2곳도 안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월28일부터 5월12일까지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해당 조사는 오는 2024년 1월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약 7개월 앞두고 중소기업 현장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

한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사결과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40.8%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이 중 절반 이상(58.9%)은 ‘최소 2년 이상 적용시기 유예’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월27일부터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고 있는 50인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절반 이상(50.4%)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 관련 예산·인력을 확대했지만 셋 중 하나(34.8%)는 여전히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전문인력 부족’(77.8%)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가운데

‘위험성 평가 등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조치(시행령 제4조제3호)’가 중대재해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 39.2%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적이 없거나, 연 1회 미만 실시한다고 응답했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로는 ‘안전 전문인력 등 업무수행 인력이 부족해서’(46.9%)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정부가 산재예방 지원예산 규모를 1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활용 중이거나 활용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16.0%에 그쳤다.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활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49.5%가 ‘어떤 지원사업이 있는지 잘 모른다’고 답해 정부의 적극적인 산재예방 지원사업

안내·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부족해서’(19.3%)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16.4%) 등을 이유로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가장 도움이 된 산재예방 지원사업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36.3%)이 꼽혔다. 이어 ▲‘클린사업장 조성 사업’(27.5%) ▲‘안전투자 혁신사업’(22.5%) 순이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2024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50인 미만 업체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높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 정책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광주은행 ‘고객 상생 아이디어 공모 이벤트’

광주은행은 지방은행 브랜드과워 6년 연속 1위를 기념해 고객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고객과 상생하는 아이디어 공모 이벤트’를 개최하고, 오는 30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규 상품 또는 서비스 ▲100년 은행으로 발전을 위한 디지털 금융 아이디어 ▲광주은행 상

품·서비스·제도 관련 불편사항이다. 참여 대상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참여 방법은 광주은행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뱅킹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하여 불편 및 개선의견이 담긴 고객 의견을 남기면 된다. 심사를 통해 ▲대상 1명에게 광주은행카드 50만

원 ▲우수상(2명 이내)은 광주은행카드 30만원 ▲장려상(50명 이내)은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2만원을 증정하며 ▲참여상(선착순 100명)은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 1만원을 증정한다. 수상자는 오는 7월 중에 개별 문자 통지 예정이며,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광주은행 프로세스혁신부 나선진 부장은 “많은 고객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신용화 LIG넥스원 무인화미래전사업부장이 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MADEX 2023(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서 이종호 해군참모총장과 국내외의 군 관계자, 각국 무관단들에게 전시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LIG넥스원 제공)

LIG넥스원, 최신 해양유도무기 선보인다

부산 벡스코 ‘국제해양방위산업전’서 AUV 등 기술력 공개

LIG넥스원은 7-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국제해양방위산업전(International Maritime Defense Industry Exhibition, 이하 MADEX)’에 참가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우리 군의 미래전을 책임질 수상, 수중, 공중 유무인 복합체계(MUM-T, Manned-Unmanned Teaming)의 최신 기술력과 수출 시장을 겨냥한 해양유도무기 등을 선보인다. MADEX에 참가한 기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전시공간을 확보한 LIG넥스원은 해군이 추진하는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인 ‘Navy Sea GHOST(해양의 수호자, Navy Sea Guardian Harmonized with Operating manned Systems and Technology based unmanned systems)’에 호응할 종합 솔루션을 제시한다. 전시관은 무인수상정을 중심으로 한 MUM-T와 함정 탑재장비, 해양유도무기 분야의 3개 존(ZONE)으로 구성했다. MUM-T 중에서도 해군의 기뢰대항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최신 기술력을 공개한다. 수중자율 기뢰탐색체(AUV,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는 수중에서 자율 주행으로 기뢰 탐색이 가능한 해군 최초의 무인잠수정이다. 중량 60

kg 이하로 승조원이 휴대할 수 있도록 개발했으며, 리튬-폴리머 전지를 이용해 장시간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적 기뢰의 폭발 위험으로부터 인명과 장비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중자율기뢰탐색체(AUV)는 이번 전시회에서 공개되는 무인수상정 ‘M-Hunter’와 수중통신으로 연동해 임무수행이 가능하며, 이종간 군집운용을 통해 항후 기뢰대항작전(MCM)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M-HUNTER’는 국방과학연구소 해양기술연구원에서 한-호주 국제공동연구과제로 개발한 무인수상정으로, 수중자율기뢰탐색체(AUV)와 연동해 자율 기뢰탐색 임무를 수행한다. 김지찬 LIG넥스원 대표이사는 “갈수록 복잡해질 미래전의 전투 양상과 병력자원 고갈 문제에 동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Navy Sea GHOST(해양의 수호자) 구축이 필수”라며 “인공지능과 데이터링, 체계통합, 자율화 기술 분야에서 LIG넥스원이 축적한 경험과 실력, 끊임없는 열정을 통해 Navy Sea GHOST의 성공을 향한 해군의 노력에 발맞춰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

한사람의 보험비용이 전국민의 경제부담을 줄여줍니다.

보험사기 ZERO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법제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롯데백 광주점, 환경의 날 맞이 광주천 정화활동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세계 환경의 날(6월5일)을 맞아 지난 5일 광주천을 방문해 광주천 주변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 이번 봉사활동에는 광주점 샤프트봉사단 10여명이 참여했다. 환경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광주천 일대의 양림교에서 서석교까지 이동하면서 쓰레기 및 각종 오물 등을 수거하고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임연희 샤프트 봉사단원



은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

난방비 똑똑하게 절약하는 방법!

- ①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는 20°C입니다. 난방온도 1도 낮추면 에너지사용량을 7% 줄일 수 있습니다.
- ② 북쪽이와 문풍지로 외풍을 막으면 실내온도를 2~3도 가량 높일 수 있습니다.
- ③ 내복, 양말 등 실내에서 방한용품을 활용하면 체감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④ 전열기는 꼭 필요한 때만 사용하고, 사용 시에는 소비전력을 꼭 확인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